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연구*

A Study of the Public Library Movement in Korea

이 연 옥(Yeon-Ok Lee)**

목 차

- | | |
|---|--|
| 1. 이 글의 배경 | 3. 3 1980, 90년대 공공도서관 운동:
운동의 확대와 성과의 가시화 |
| 2. 이 글의 범위와 대상 | 3. 4 현단계 공공도서관 운동: 새로운
위기와 대응 |
| 3.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의 단계 | 4. 운동의 평가와 과제 |
| 3. 1 해방 직후의 공공도서관 운동:
해방, 새로운 시도, 그리고 좌절 | 5. 결론을 대신하여 |
| 3. 2 1960, 70년대 공공도서관 운동:
제도화 노력과 운동의 발전 | |

초 록

이 연구는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의 역사를 총체적인 시각으로 정리하고 해석하였다. 공공도서관이 우리 사회의 지식정보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위한 실제적인 대안임을 규명하고,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history of the public library movement and identify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 finally looking for the significance and direction of the public library in the future. This research proves through the history of the public library movement that in the information era the public library can be one alternative in realizing the publicity and equalit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our society.

키워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운동, 정보불평등, 정보공유

- * 이 글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이연옥,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연구-지식과 정보의 공공성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논문(부산대학교), 2001. 8)을 요약 및 재구성한 것이다.
-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idisfeel@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2년 8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9월 14일

1. 이 글의 배경

이 글은 지식·정보사회라는 현재적 상황에서 출발한다. 현재는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지식과 정보가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성장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지식·정보 그 자체가 상징적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이것은 다시 부의 축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식·정보의 접근과 획득은 개인의 삶의 질 문제를 좌우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그것의 접근과 획득의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지식격차, 정보격차라는 새로운 사회적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식격차, 정보불평등이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른바 공공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이념으로부터 탄생하였고, 지식과 정보의 공공적 원리를 역사적으로 실천해온 사회적 기관이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원리와 철학은 지식·정보의 대중적 접근과 활용이 보다 중요시되는 지식·정보시대에 보다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도서관'이란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이 처한 모습은 이른바 "공공도서관 없는 나라, 책 없는 공공도서관"¹⁾

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해방이후 50년이 넘도록 지식과 정보와 문화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빈곤 속에 방치해 둔 채 현재에 이르러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 그것에 대한 시민의 접근과 활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식정보시대를 노래하고 있는 셈이다. 이 글은 지식·정보의 대중적 접근지요, 지식·정보의 평등화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관이라는 공공도서관이 가지는 본래적 기능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처한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강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의 대중적 접근을 유도하는 사회 보편적인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의 측면에서나 사회인식의 측면에서 저발달의 상황에 놓여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 대중적 확산과 보급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는 지식·정보의 접근에 있어서 불평등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에서 정작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공공도서관의 현재를 둘러싼 사회구조 뿐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 공공도서관이 발전해온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분석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한국 공공도서관 성립과 발전과정에서 이뤄진 노력과 활동은 무엇이며, 그 결과로 현재의 공공도서관은 어떠한 단계에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1)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홍보자료.

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공공도서관의 발전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지식·정보시대, 우리 사회 지식·정보의 공공성과 평등성의 실현은 공공도서관이 그 대안이 된다는 것을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다.

2. 이 글의 범위와 대상

연구자는 이 글에서 '공공도서관 운동'이라는 큰 맥락에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정리하고 해석하여 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공공도서관 운동'이란 공공도서관이란 사회적 장치에 기반하여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보급과 확산, 지식·정보의 공공성과 민주화를 실현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요컨대 사회의 제반 요소로부터 파생된 도서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대중이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보장받음으로써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운동의 범위에는 '공공도서관'²⁾이란 사회적 장치를 뿌리내리고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 즉 공공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보급하는 노력에서부터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확보하는 노력, 도서관운영의 근대화를 모색하는 노력, 단위도서관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에게 질 높은 도서관서비스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 노력과 활동들이 공공도서관 운동의 범주에 포함된다.

연구자가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공공도서관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의 대중적 접근을 유도하는 사회 보편적인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의 측면에서나 사회인식의 측면에서 미발달의 개척기적 상황에 놓여 있어 그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상황은 그것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보편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운동을 부르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달의 역사 또한 공공도서관을 뿌리내리고 확산하여 그것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려는 운동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운동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는 공공도서관을 뿌리내리고 확산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과 활동을 시도하였으며,

2)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4항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며, “설립자에 따라 국립공공도서관, 공립공공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으로 구분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조 2항에 따르면 “문고라 함은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 공공도서관의 범위는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공재정으로 유지하며 지역의 특정 계층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1996, 30쪽.)이란 공공도서관 개념에 기준하여 국립공공도서관, 공립공공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도서관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문고를 포함한다.

그것의 성과와 좌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과와 좌절의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공공도서관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기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떠한 운동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야 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 글에서는 시대적 범위를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하여 공공도서관 운동의 발전과정과 역사를 조명하였다.³⁾ 이를 위해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공공도서관 운동의 변화추이를 주요한 사건과, 사회적 환경, 운동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운동의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 운동 현상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운동의 전개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1단계는 해방직후부터 한국전쟁이후의 1950년대 말까지를 포함한다. 이 시기는 일제로부터 도서관을 인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운영을 모색하고, 도서관인들의 전문단체인 도서관협회를 건립하는 등 도서관의 기반을 확보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단계는 '도서관의 기반조성에 주력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2단계는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이다. 도서관법제정을 비롯한 도서관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마을문고운동을 비롯한 민간도서관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단계는 도서관제도화 노력 및 민간도서관 운동 주력기로서 '운동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3단계는 공공도서관 운동이 확대 발전하는 시기로서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전 시기가 민간차원에서 도서관을 확보하는 운동에 주력하였다면 1980년대로 접어들면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을 근대화하고 도서관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운동에 주력하는 양상을 띤다. 입관료폐지운동, 개가대출운동, 이동도서관운동, 법과 제도의 개선 등의 구체적인 운동들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고 결과적으로 도서관운동이 질적 상승을 이루게 된다. 이 단계는 운동이 맹위를 떨치는 '도서관 운동의 확대심화기'라 할 수 있다.

4단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공공도서관계의 상황과 움직임을 조명한다. 특히 이 시기는 전문직관장시대의 도래라는 긍정적 상황과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역행하려는 도전-공공도서관 명칭변경, 구조조정, 민간위탁-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공공도서관계의 저항이 전면적으로 일어난다. 이 시기 공공도서관계가 직면한 위기와 이에 대한 도서관인들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조명해보며 동시에 정보사회라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 운동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각 단계별 공공도서관 운동을 그 시대적 상황에서 보이는 도서관현상의 복잡성과 그것의 의미구조를 밝혀 해석하고, 이와 관련한 도서관 주체들의 활동과 대응구조를 분

3) 개화기와 일제시대의 공공도서관의 성립과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고기식, 김포옥, 이항숙, 오한석의 연구에 잘 나타난다. (고기식, 「한국 도서관발달의 사적 고찰-근대 도서관설립 운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1976; 김포옥, 「일제하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1978; 이항숙, 「한국 근대도서관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이화여자대학교), 1980. 오한석, 「한국 근대도서관 설립운동의 사적 고찰-개화기와 일제치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한양대학교), 1987)

석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발전과정을 사적으로 추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의 전개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이후 공공도서관 운동의 과제를 조망해 보았다.

3.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의 단계

3.1 해방직후의 공공도서관 운동: 해방, 새로운 시도, 그리고 좌절

3.1.1 운동의 내용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운동은 개화기 지식인들의 지식의 대중적 보급과 확산운동으로부터 출발한다. 개화기 지식인들은 지식과 정보의 대중적 보급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관이 공공도서관임을 자각하고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운동을 전개하였다.⁴⁾ 그러나 지식인들의 자각에서 출발한 도서관운동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좌절을 겪게 된다. 식민지시대 일제에 의해서는 공공도서관이 식민정책의 구현장치로 활용되어 우리 국민을 위한 지식 접근과 보급은 봉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도서관운동은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 도서관계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일제

의 도서관을 온전히 이관하여 해방된 조국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우리 민중들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시도하였다. 먼저, 일제의 식민지정책 아래 운영되어 왔던 모든 도서관들을 우리의 손으로 넘어오게 하는 일로부터 도서관계의 본격적 활동이 시작되었다. 조선총독부도서관 인수는 해방을 맞이한 다음날인 8월 16일에 조선총독부에 남아있는 한국인 직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접수할 것을 결의한 뒤 박봉석, 이선영, 강춘수 3인이 대표가 되어 일본인으로부터 서고의 열쇠를 인수하여 전 장서를 접수한다. 이후 박봉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서관수호문헌수집위원회'⁵⁾를 조직하여 서울시내 각 도서관을 순회하며 도서관을 접수하였다. 당시의 도서관 접수에 참여했던 도서관인들은 이 작업을 "민족의 사상과 정신적 유산인 장서를 일본으로부터 인수하는 일"⁶⁾로 간주하였다.

또한 도서관수호문헌수집위원회는 '문헌수집대'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해방직후 거리에 뿌려지고 있는 각종 인쇄물-포스터, 폐라에 이르기까지-을 수집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이들 자료들이 건국사료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당시 발간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문헌수집대는 종일 거리를 헤매었다고 한다.⁷⁾ 당시 도서관인들은 "국가문헌을 망라적으로 수집한다는 사명감의 발로"⁸⁾에서 문헌수집에

4) 백린, 『한국도서관사연구』, 한국도서관협회, 1969, 141-147쪽.

5) 도서관수호문헌수집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박봉석(부관장), 서무: 강춘수(서기), 송포백(사서보), 재무: 박원하, 아현동서고: 이선영, 문헌수집대: 기타 잔여 직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사』, 1973, 239쪽.)

6) 위의 글, 241쪽.

7) 위의 글, 241-2쪽.

8) 김세익, 『도서·인쇄·도서관사』, 종로서적, 1982, 241쪽.

총력을 다했던 것이다.

박봉석을 중심으로 도서관을 접수하는 활동을 펼친 위원회는 개별적 도서관의 행동보다는 조직적이고 안전한 도서관 접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그리고 해방을 맞은 도서관계가 당면한 문제를 조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도서관인들을 묶어내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단체건설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1947년 4월 21일 도서관인들의 결집체인 조선도서관협회가 결성하게 된다.

더불어 이 시기 도서관인들은 도서관계의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새로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관으로 국립조선도서관학교와 도서관사범강습회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그 당시 도서관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일제로부터 인수받은 도서관을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도서관계의 핵심주체로 남게 하는 등 도서관계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였다.

도서관계의 기반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당시 도서관인들은 공공도서관을 전국적으로 건립하려는 의도에서 '하나의 군에 하나의 도서관을 세우자'는 '一郡一館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도서관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순회문고사업'을 실시하는 등 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증설운동을 시도하였다. 또한 도서관건립을 지원하고 후원할 사회세력들을 조직하는 '도서관후원회'를 조직하는 활동도 전개하여 도서관설립운동에 광범위한 연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도서관설립 운동과 더불어 당시 도서관인들은 지식확산과 보급운동의 구체적이고 실질적

방안으로 '농어촌책보내기 운동'을 비롯한 독서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같은 도서관설립 운동 및 독서운동은 당시 8월이라는 문맹을 가진 우리 사회에서 문맹퇴치운동 및 국민계몽운동의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3. 1. 2 운동의 평가

먼저, 해방 후 국가재건사업이라는 환경 속에서 '지식의 보급과 확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이 시기 운동의 특징이자 의의라 할 수 있다. 도서관이 일반 대중의 지식욕에 응답하는 주요 사회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 시기 도서관인들은 해방이후 과도기적 혼란과 악조건을 무릅쓰고 전국에 지식의 대중적 보급과 확산을 실현하기 위해 도서관을 건립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도서관 이용가치 인식의 고취 및 독서운동을 진행함으로써 민중의 지식수준 향상, 민족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도서관 운동주체들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치하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커다란 이유를 바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식수준이 뒤떨어졌다는 데서 찾았다. 따라서 해방 후 새로운 국가건설에 있어서 지식의 중요성, 그것의 보급과 확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문자보급과 지식수준의 향상을 위한 기반으로 도서관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당시의 이같은 도서관운동은 도서관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희생에 힘입어 진행되었다는 점이 해방직후 도서관운동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재욱, 박봉석, 박희영 등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인물들은 이 시기에 있어 도서관운동의 주도세력으로

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키며 도서관설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갔다. 이들의 선구적인 활동으로 해방 후 도서관계의 기반이 그나마 확보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 지도자들에 의한 도서관설립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식 보급과 확산을 위한 적극적 운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도서관은 우리 사회에서 그 저변이 확대되지 못하였다. 국가재건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도서관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관심을 끌어내기에는 그 시대가 너무도 혼돈스러웠고 경제적 여건 또한 어려웠다. 이와 더불어 문맹퇴치가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그 당시 사회에서 도서관이 가진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인식 부족도 도서관 확충사업을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도서관의 증설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도서관에 대한 지원 또한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이 시기는 도서관운동의 적극성을 담보해내기에는 그 시대적 상황이 너무 열악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운동은 우리 도서관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시기는 현대적 도서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도서관계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으며, 해방직후의 혼란기적 상황에서도 우리 도서관인들이 도서관 운동을 통해 지식보급과 확산을 위한 자생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데서 그 시대의 개척기적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 시기는 해방의 기쁨과 한국전쟁이라는 좌절 속에서

도서관운동이 혼미와 모색을 거듭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2 1960, 70년대 공공도서관 운동: 제도화 노력과 운동의 발전

3. 2. 1 운동의 내용

해방직후 우리 민중들에게 지식의 보급과 확산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도서관운동은 한국전쟁으로 일시적 좌절을 겪게 되었으나 전쟁이후 6, 70년대에 다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6, 70년대 한국 사회는 전란을 겪은 후 국가재건에 바빴고, 경제성장과 안보에 온 국력을 기울이는 동안 도서관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또한 우리의 전근대적 교육상황과 빼뺏어진 교육열도 도서관문화를 꽃피우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계에 보기 드물 정도라는 교육열이었지만 입시에 당장 도움이 안되고, 졸업장과 같은 간판을 제공할 수 없는 사회교육시설이라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을 열망하거나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⁹⁾ 오히려 당시의 전근대적 교육상황은 공공도서관을 독서와 정보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공부방이란 기이한 형태로 내몰았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근대적 공공도서관을 세우기 위한 도서관인들의 몸부림은 거듭되었다. 먼저, 도서관계는 도서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도서관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얻어냈다. 하

9) 이용남, "마을문고의 이념과 원리: 공공도서관 운동의 측면에서", 《국회도서관보》, 16권 3호(1979. 4), 65쪽.

지만 당시 제정된 도서관법은 도서관 불모지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서관의 육성과 발전을 내어오기에는 한계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불안전하고 미온적인 법제정으로 말미암아 도서관 발전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낙후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해 도서관인들은 또다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의 개정을 촉구해야 하는 운동과제를 떠 안게 된다.

한편, 이 시기 도서관인들은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토착화하려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된다. 우선, 민간영역에서 임대섭을 중심으로 전개된 마을문고운동이 6, 70년대 도서관운동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한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일어난 민간의 자발적 운동으로 농어촌 마을단위에 문고를 설치하고, 주민이 공동의 힘으로 관리, 운영하여 농어촌 지역주민이 독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벌여나간 민간도서관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마을문고운동이 처음 일어날 당시인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수는 전국적으로 20여 개 정도의 극소수에 불과했고,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도 공공도서관 증설을 뒷받침해 줄 강력한 법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도서관봉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문고를 통한 지식보급과 확산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 사람이 임대섭이다. 그는 마을문고운

동이 농어촌의 민중들에게 지식의 혜택, 도서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믿고 각 마을마다 문고를 대대적으로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책과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바로 '마을문고'는 임대섭이라는 한 개인의 경험과 사상에서 형성되었고 농촌도서관운동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마을문고운동은 전국의 일간지와 방송의 집중조명을 받게 되고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번져나가 1979년에는 전국 理洞수의 거의 95%에 해당하는 36,303개의 마을문고가 설치되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¹⁰⁾ 또한 1980년 8월에 이르면 마을문고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임대섭이 '막사이사이 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초에 접어들어 마을문고의 단위인 농촌마을의 붕괴,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교통과 통신의 발달,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사회여건이 크게 변하게 됨에 따라 마을문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결국 마을문고운동은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되어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산하로 통합하고 만다.¹¹⁾

한편, 민간도서관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립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는 도서관서비스를 민중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전국적 차원에서는 민중의 독서습관 함양을 위한 사회운동으로서 독서운동이 전개

10) 최정식, 「마을문고의 실태와 사회교육적 기능」, 석사학위논문(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7쪽.

11) 마을문고는 현재 '새마을문고'라는 이름과 형식으로 남아 있으며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산하 단체인 '새마을문고중앙회'의 관리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문고사업 또한 농어촌 중심의 단위문고 설치육성에서 특수문고, 독서대학, 이동도서관 설치 운영 등의 도시형 독서운동으로 전환되었다. 문고수는 2001년 현재 2,643개로 드러난다. 새마을문고는 전국에 걸쳐 농어촌과 대도시의 직장이나 공장에 소도서관 구실을 하는 마을문고와 역 대합실, 터미널, 민원실, 공원 등에 특수문고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새마을문고운동40년사 편찬위원회, 『새마을문고 운동 40년사』, 새마을문고중앙회, 130-152쪽, 468쪽 참조)

되었고, 개별단위도서관에서는 도서관서비스의 개혁을 통해 지역사회 도서관문화의 확산을 꾀하였다.

3. 2. 2 운동의 평가

우선, 1960년대와 70년대 도서관운동은 '지식자원의 사회적 확산과 보급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6, 70년대 우리 사회의 최상 목표는 산업근대화의 달성이었다. 산업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생산과 건설은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주택을 개량하고 농지를 넓히는 등의 농촌소득증대를 목표로 전개된 새마을운동 또한 산업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국가적 시도였다. 이와 같이 물적자원의 개발에 치중하는 사회적 풍토에서 인간의 지적자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지적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을 모색한 것이 바로 이 시기 도서관운동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인들은 "참다운 근대화는 물적자원의 개발과 지적자원의 개발이 동시에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¹²⁾고 보고 물질적 개선과 동시에 그것의 원동력이 되는 정신적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바로 이 시기 도서관운동은 정신개발의 일차적인 도구인 지식의 보급을 담당하는 도서관을 확보하려는 사회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둘째, 이 시기 도서관운동은 농촌지역을 비롯한 우리 사회 소외된 계층에게 지식의 접근을 보장하고 보급하려는 사회운동이자 농촌계몽운동이었다. 특히 농어촌을 중심으로 전개

된 마을문고운동은 지식과 정보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게 지식에 대한 접근기회를 보장하고 그 혜택을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전개된 전형적 운동사례라 할 수 있다. 바로 소외된 민중의 '알권리와 읽을 권리'를 도서관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민중운동이 이 시기 도서관운동이었다.

이처럼 도서관법 제정운동, 민간차원의 마을문고운동, 개별단위도서관의 개혁운동을 비롯한 이 시기의 도서관운동은 '민중의 읽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식의 대중적 접근과 확산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바로 지식의 대중적 보급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민중의 자료공급소이며, 민중의 교육기관'¹³⁾인 공공도서관을 뿌리내리려는 도서관인들의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몸부림과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공공도서관은 우리 사회 지식과 정보의 대중적 접근지며, 시민의 일상적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시기 우리나라 도서관의 황폐성에 대한 지적은 지루하리만큼 반복해서 논의되고, 건의되어왔던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반응은 미약하였고, 정책적인 반영 또한 지지부진하였다. 또한 자발적 민간도서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문고운동이 20여 년 간 넘게 우리 사회에 지속되어 전국 마을 곳곳에 마을문고가 설치, 육성되어 민중 독서공간으로서의 위력을 떨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침체하고 말았다. 동시에 개별단위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도서관운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12) 엄대섭, "마을문고와 국민독서", 《도서관》, 25권 7호 (1970. 7), 8쪽.

13) 김영모, "공공도서관을 위한 몇 가지 구상", 《도서관》, 35권 3호(1980. 4·5), 35쪽.

그것의 파급효과는 전체 도서관계로 확산되지 못하였고 지역사회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몇몇 도서관운동 지도자들이 도서관개혁과 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냈지만 공공도서관 현장의 대부분의 사서들이 도서관운동의 주체 세력으로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도서관현장에서 서비스혁신을 내어오고 단위 도서관운동과 전체 도서관운동을 동시에 도모할 인력의 부재함은 당시 도서관운동의 세력을 형성하고 이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한계로 드러난다. 공공도서관은 주로 비전문직 인력으로 채워졌었고, 그나마 확보된 전문 인력도 공공도서관의 열악성을 외면하였기에 도서관운동의 위력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국 도서관계를 개혁할 주체세력의 부진은 조직적 도서관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큰 난제로 작용하였다. 바로 이는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 이룩된 운동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분산적이며 개인적인 운동에 머물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현장 운동주체들에 의한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도서관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이 시기 운동의 한계로 남는다. 6, 70년대 도서관운동의 이러한 한계점은 다음 시기 도서관운동에서 극복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3. 3 1980, 90년대 공공도서관 운동: 운동의 확대와 성과의 가시화

3. 3. 1 운동의 내용

1960년대와 70년대에 전개된 공공도서관 운동은 민간도서관 운동인 마을문고운동이 큰

축을 형성한 반면 제도권내에서는 도서관법제정이라는 결실을 제외하고는 운동이 미약한 수준에 그쳤고 그 성과 또한 미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로 접어들면 공공도서관 운동은 그 규모가 확대되고 운동의 성과 또한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6, 70년대에 지속적으로 염원해온 도서관제도의 개혁과 근대화 의 열망은 1980년대와 90년대 구체적인 운동으로 표출되어 도서관법 개정, 도서관정책 소관부처 이관 등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비롯하여 개가제와 관외대출제의 실시, 입관료 폐지 등의 도서관운영의 근대화를 실현해낼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시기는 우리 사회의 물질적 발전에 부응하는 도서관문화를 확보하기 위한 도서관인들의 운동이 본격화되었고 이에 따라 구체적 성과를 쟁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 운동의 확대 심화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전개된 운동을 좀더 구체적 살펴보고자 하자.

먼저,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걸쳐 도서관계를 달구었던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도서관법의 개정이다.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은 제정 당시부터 구체적인 보장이 없는 형식법이라는 도서관계의 거센 여론에 계속 부딪쳐 왔으나 단 한 조항의 개정도 없이 1980년대까지 오게 된다. 법개정운동은 개정 이후부터 있었으나 그것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였다. 도서관법의 제정 이후 이 시기 도서관인들의 의식적이고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1987년 「도서관법」, 1991년 「도서관진흥법」,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이어지는 세 번에 걸친 법개정이 이뤄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도서관법

은 보다 진일보하게 된다.

더불어 이 시기 도서관계를 달구었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1988년 정부의 문화부신설과 더불어 제기된 '공공도서관 업무 관장문제'였다. 당시 도서관인들은 우리나라 도서관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행정담당부서인 문교부의 무관심과 그에 따른 정책 부재에 기인한다고 보았기에 문화부신설을 기점으로 도서관정책 소관부처의 문화부이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도서관 업무 관장문제는 도서관인들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이 문제를 중심으로 도서관인들은 조직적인 대응을 전면적으로 벌여냈다. 당시 도서관학과 학생회 연합조직인 전국도서관학과학생연합회,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 정책의 문화부이관 운동 과정에서 탄생한 조직인 전국사서협회에서 도서관 운영 침체와 정책 부재 현상을 비판하면서 공공도서관의 문화부이관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도서관정책 소관부처 이관문제는 문교부와 문화부 두 행정부서의 이권 문제로 첨예화되면서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었다. 결국 도서관계의 적극적인 이관운동에도 불구하고 문교부와 문화부의 알력 속에서 도서관정책의 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은 문화부에서 총괄하고, 교육청 소속도서관은 교육청이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도서관정책의 문화부총괄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도서관진흥법」이 제정 공포되고, 문교부에서 관장하던 도서관업무가 문화부로 이관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서 문화부에서는 어문출판국내에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여 도서관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시기 공공도서관 운동은 운동단체나 조직을 형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전체 도서관운동을 전개하는 양태를 띤다. 1980년대 초 중반에는 대한도서관연구회가 도서관운동의 중요한 거점이 되어 전체 도서관운동을 전개해갔고,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전국사서협회가 공공도서관 운동의 선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먼저, 대한도서관연구회는 1980년대 초중반 도서관운영의 근대화를 도모한 도서관운동의 핵심조직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도서관운동이 제도개선 운동과 민간도서관 운동에 초점을 두었다면 1980년대는 제도권 내의 공공도서관 운영의 근대화를 실현하는 운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바로 이 운동의 중심 축에 대한도서관연구회가 자리한다. 엄대섭, 조원호, 이용남이 주축이 된 대한도서관연구회는 1980년대 초중반 도서관계가 직면한 문제를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해결해나갔다. 이들은 당시 공공도서관의 현단계에 대한 인식과 분석을 토대로 그 단계를 개선하는 작업으로 이동도서관운동, 개가 및 관외대출운동, 입관료폐지운동을 설정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벌여냄으로써 공공도서관 운영의 근대화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운동은 좌석과 건물위주의 당시 도서관체제에서 봉사와 자료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모색이었다. 또한 대한도서관연구회는 입관료 폐지를 즐기치게 부르짖음으로써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대한도서관연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도서관운동은 당시 도서관의 상황과 단계에 맞는 아주 구체적이면서 실천적 운동으로서 도서관현장을 근대화하는 실질적인 성과

를 남겼다.

전국사서협회는 공공도서관 정책 소관부처 이관운동 과정에서 탄생한 조직이다. 1989년 공공도서관 소관부처 문제가 거론되자 현장사서들은 도서관 문제의 조직적 해결을 위해 전국적 단위의 사서직 전문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에 1990년 5월 2일 “도서관문제 의 주체인 사서들이 나서서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 및 조직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전국사서협회란 단체를 결성하였다.

더불어 사회환경도 도서관관련 전국 운동단체의 결성을 유도하고 자극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우리 사회는 민주화운동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운동 역량이 배가되었고, 또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근대성을 확보하고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전문직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다. 도서관계 내부에서도 80년대 후반 격동의 사회를 거치면서 도서관이 사회발전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의식을 토대로 도서관발전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발전과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서직 집단의 의지가 표출되었고, 이러한 의지들은 전문직 운동단체인 전국사서협회의 출범으로 모아졌다. 이처럼 도서관 내외부 환경은 사서직 운동을 고무하고 유도하는 필연적 상황이었기에 현장사서직들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개혁을 담당하기 위해 그 주체로 나섰다.

이렇게 탄생한 전국사서협회는 ‘사서직의 위상정립과 자질향상을 통한 참다운 도서관문

화의 창출’, ‘국민과 함께 하는 봉사를 통한 민주시민문화에의 기여’, ‘사서와 도서관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구조 및 도서관정책에의 주체적 참여’, ‘사서의 권익 옹호’¹⁴⁾라는 목표아래 현장사서들에 의한 조직적 운동을 시도하였다. 특히 도서관정책 소관부처 문화부이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개혁 과정에서 전국사서협회의 조직력과 발빠른 대응들은 조직적 도서관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포부와 열정을 제대로 실현할 만큼 현실이 뒷받침해주진 않았다. 전국사서협회는 사서들의 대중적 조직, 진보적 도서관운동단체로 서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역부족이었다. 초기의 열기로 가입한 회원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 떨어져나갔고, 현장에 새롭게 유입되는 인물도 많지 않은데다 이들 신규 사서들마저 회원으로 확보되지 못하는 등 사서들의 대중적 조직이 아니라 몇몇 의식있는 사서들의 진보적 집단에 머물러 버리고 전국사서협회 운동은 점점 소진되어 갔다. 바로 조직력의 확보와 대중성 획득의 실패로 인해 전국사서협회의 운동이 침체를 겪게 되고 만다.

한편, 이 시기 단위도서관에서 진행된 운동은 도서관운영의 전근대성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주를 이룬다. 전체 도서관계가 전근대적인 양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가운데서도 국립중앙도서관분관, 경기도립수원도서관과 울진군립도서관 등의 단위도서관에서는 독서교실, 개가대출제의 실시 등 서비

14) 전국사서협회 창립준비위원회, 「'전국사서협회는 어떤 단체인가' 자료집」, 1990. 9.

스개혁을 통해 도서관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그 존재의미를 확산시켰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도서관운동의 한 유형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간도서관 운동이다. 이 시기 민간도서관 운동의 출현 배경은 당시 우리 사회 민주화운동의 고양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1980년 후반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대중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후 운동과정에서 축적된 대중운동의 역량을 유지,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지역 곳곳에서 일어났다. 노동공간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이나 지역단위에서 지역주민을 조직화하려는 노력들이 바로 그 예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도서관은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조직하는 주요한 공간으로 상정되어 '책을 통한 대중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도서관이 지역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1987년 이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서관, 서울지역의 주민도서관, 마산·대구 지역의 주민도서관이 바로 이러한 예들이다.

이들 노동도서관 및 주민도서관은 경제적·시간적 이유로 책문화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 혹은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달동네나 시장어귀, 주택가나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분포하면서 책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 노동자들의 호응 속에 소리 없이 확산되었다. 대체로 1987년 이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민주화열기에 힘입어 노동운동 차원에서 혹은 지역운동 차원에서 제도권도서관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에서 도서관에 대한 갈망과 대안으로서 민간도서관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자발적 민간도서관 운동은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책을 통해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고자 하였으나 각 도서실마다 고립 분산적으로 활동하였고, 취약한 물적 인적 조건으로 인해 지역도서관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대부분 소멸해가고 만다. 노동도서관 및 주민도서관 운동은 일반 공공도서관이 하지 못했던 지역주민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당시 소외된 사람들과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적 혜택을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자생적 몸부림이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도서관운동의 중요한 줄기로 평가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이들 민중운동적 성격의 민간도서관 운동은 점점 쇠퇴하고 문고운동이라는 민간도서관 운동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주민 스스로가 혹은 민선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확보 차원에서 문고형태의 작은도서관을 세우는 움직임들이 바로 그것이다. 작은도서관 설치운동은 1994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문고설치 권장과 때를 같이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문고형태의 작은도서관이 설치되는 공간은 아파트단지 내, 교회 안, 마을회관, 복지회관, 병원, 군부대, 파출소, 노인정 등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저개발지역, 산간벽지와 같은 열악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후 이 운동은 작은도서관협의회라는 전국적 조직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문고형태의 작은도서관을 세워내려는 움직임으로 확대되었다.

3. 3. 2 운동의 평가

먼저,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진행된 도서관운동은 이전 시기에 비해서 도서관운동의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이 시기 운동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도서관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도서관인들의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나 도서관운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많았고 그 성과 또한 미약하였다. 6, 70년대에 주력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성과 없는 메아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당시 도서관인들이 도서관제도 개선에 거는 기대는 절망적 상황이었다. 결국 제도개선을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1980년대 초부터는 도서관 내부 운영의 근대화운동에 주력함으로써 개가제와 관외대출제가 정착되는 등 도서관현장이 근대화되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다시 이것은 도서관법 개정, 공공도서관 정책 소관부처의 이관 등 제도개선의 성과로 이어졌다. 이 시기는 운동이 맹위를 떨침으로써 도서관운동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 하나 이 시기 공공도서관 운동에서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운동단체나 조직을 중심으로 전체 도서관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초중반에는 대한도서관연구회가 운동의 중요 거점이 되어 도서관운영의 근대화를 시도하였고, 90년대부터는 사서들의 전국적 조직으로 전국사서협회가 공공도서관 운동의 선봉이 되었다. 6, 70년대가 선도적인 개별 운동 지도자 중심의 분산적이고 고립적 운동을 전개하여 운동의 역량을 축적하고 확대해 가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면, 90년대에 이르면 전국사서협회란 조직을 통해 도서관현장 사서들에 의한 조직적 운동의 길을 열

어주었다. 물론 전국사서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사서직운동은 개개의 현장사서를 운동의 주체로 세우고 이들 사서간의 연대를 통해 도서관계가 산적한 문제를 조직적으로 해결하는 운동단체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현장사서에 의한 조직적 도서관운동을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까지 진행된 도서관운동은 현장사서에 의한 조직적인 도서관운동으로서 전문사서직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도서관 운영의 근대화와 법과 제도의 개선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쟁취함으로써 도서관운동이 확대되고 증폭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이 시기 운동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개별 운동간에 유기적 결합이 안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제도권내의 공립공공도서관 영역에서 전개된 운동은 도서관의 법, 제도, 행정의 개선이나 도서관 서비스개혁과 운영의 근대화를 실현하는 데 집중되었고, 6, 70년대의 마을문고운동의 후신인 새마을문고, 1980년대 후반 사회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탄생한 노동도서관 및 주민도서관, 이후 나타난 작은도서관 등의 민간도서관영역은 공립공공도서관과는 별개로 발전하였다. 도서관의 수적 부족과 기능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민간의 자발적 운동인 민간도서관 운동은 예산과 인력 면에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 소멸해 가는 양상을 띄었다. 도서관계에서는 전체 도서관운동이란 관점에서 이들 민간차원의 운동과 공립공공도서관 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여력이 미치지 못

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시기 운동의 또 하나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의 축적과 승계'와 관련해서이다. 1980년대 초 대한도서관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전개한 개가 및 관외대출운동, 입관료폐지운동, 이동도서관운동은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운동으로서 이후 전 도서관계에 확산되는 분명한 성과를 올렸다. 지금은 공공도서관이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기본적 기능이라고 여기지만 이는 1980년대 초중반 지속적으로 벌여낸 선배사서들의 운동에 힘입은 결과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시기 단위도서관에서 진행된 개혁운동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당대의 개혁과 실천적 노력이 단위도서관내의 일회적 성과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의식 있는 사서들에 의해 추진된 개혁적 성과는 그 당대의 산물로만 남고 사람이 바뀌면 그 성과가 반감되어지는 측면이 많았다. 운동의 성과를 토대로 단위도서관내에서 심화발전 시켜내고 전체 도서관계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몇몇 개혁적 사서들에 의한 한때의 성과로만 남아버린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도서관 서비스의 개혁을 축적하고 전체 도서관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혁적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와 제도를 마련하는 후속 작업이 따라줘야 할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는 미진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3. 4 현단계 공공도서관 운동: 새로운 위기와 대응

3. 4. 1 운동의 내용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

리 사회를 움직이는 '정보화'라는 사회적 상황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더욱 요구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고, 정보화라는 환경을 토대로 지식과 정보의 대중적 접근지로 자리할 가능성을 높여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지구적인 흐름인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사적 상황과 여기에 덧붙여 경제위기라는 사회적 상황은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 및 구조조정이라는 위기적 상황으로 내몰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서관정책 소관부처의 문화부이관 운동과정에서 생취한 공공도서관장의 전문사서직 보임의 현실화를 앞두고 이를 피해가기 위해 도서관명칭을 바꾸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나 공공도서관계의 위기는 가중되었다.

현재, 도서관계는 전문직관장제의 폐기, 명칭변경을 가장한 용도변경, 민간에의 위탁경영 등 공공도서관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위기와 시련이 끊이지 않아 이를 막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도서관 수나, 전문인력, 시설 및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서관서비스가 시민들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의 정상화를 이루기도 전에 도서관계는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었고 결국 도서관인들은 그 존재기반을 지켜내기 위한 대응들을 힘겹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단계 공공도서관 운동은 이같은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여 도서관의 기반을 지켜내려는 운동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도서관운동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보이기도 한다. 먼저, 창원지역에서 지역운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직접 마

을도서관을 세워냄으로써 주민에 의한 지역도서관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도서관환경의 열악함을 개선하는 데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도서관을 세워나가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정보가 놓여져야 한다'는 생각에 주민들 가까운 곳에 지식과 정보가 놓이도록 그들 생활 근거지에 도서관을 세우는 운동을 벌여내어 마을의 회관, 아파트 복지센터, 관청, 공공건물, 종교시설, 학교, 직장 등 빈 공간에 마을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창원지역 도서관운동은 시민, 지역사회 전문가 등에 의해 진행된 밑으로부터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창원지역의 도서관운동이 시민들의 요구에 입각해서 도서관을 밑으로부터 만들어 가는 운동이라고 한다면 경기지역은 사서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지역도서관정책을 마련하는 등 사서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합하는 위로부터의 도서관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경기지역 사서들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인식에 따라 도서관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한 지역사회 도서관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서진이 지방자치단체의 설득에 주력한 결과 도차원의 도서관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성과를 올렸다. 사서

가 주축이 되어 지역도서관정책을 마련하고 지역도서관을 건립해내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현재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도서관운동 단체로서 새롭게 등장한 도서관운동연구회는 시민과 결합하는 도서관운동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이 단체는 1995년대 중반 현장사서들이 주체가 되어 도서관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소모임 '열심히 사는 사서들의 모임'에서 출발한 것으로 현재 '사회 속에서의 도서관운동'이라는 모토를 내걸며 특히 '이용자인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서관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이 출범하여 시민과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범국민적 도서관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문화개혁시민연대, 한국도서관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라는 4개 단체가 연대하여 2001년 6월 2일에 정식 출범한 사회운동조직으로 "국민들의 알권리, 읽을 권리, 지식의 공공적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서관을 정상화하고, 도서관의 자료를 확충하는 범시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¹⁵⁾ 이러한 사례들은 현재 진행중인 운동으로서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3. 4. 1 운동의 평가

이 시기 운동은 전반적으로 도서관계에 몰아닥친 위기와 도전을 막아내는데 도서관계의

15) 현재는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신기남)를 비롯하여, 문화개혁시민연대(대표 도정일), 민족문화작가회의(이사장 현기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박거용),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상임대표 한상완),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 등의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운동을 성공적으로 끌어내기에는 도서관계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현단계 공공도서관 운동에서도 전반적으로 도서관계만의 고립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고 도서관운동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끌어내고, 시민이 이 운동에 동참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도서관운동의 사회적 위력은 미약하기만 했다.

공공도서관 명칭변경의 도전과 위기에 대처하는 도서관계의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아쉬움이자 장벽은 시민의 도서관에 대한 무관심이었다. 이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도서관계의 고질적 문제였다. 도서관봉사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힘을 도서관 명칭변경 저지운동에 모아내야 하는데 우리 사회의 도서관에 대한 무관심, 특히 도서관의 이용자이며 도서관의 든든한 지지세력이 되어 주어야 할 시민들이 도서관의 간판이 내려지는 현상에 아무런 이해와 반응이 없었다.

더불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현상에 대한 도서관계의 대처에 있어서도 도서관계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회 공적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주장하는 수준에만 그치고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공공영역이 쇠퇴하는 현상은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기에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문화와 복지 등 전체 사회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보장한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계는 지역주민과 지역의원, 언론, 시민운동단체 등

광범위한 조직과의 연대 속에서 도서관이라는 공공영역을 확보하는 운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근래 진행되었던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관 도서관구입비 증액 캠페인'과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은 시민과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도서관운동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도서관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범시민적 운동의 전개는 도서관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운동의 사회적 위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계는 이와 같은 운동에 에너지를 쏟고 대대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현단계 도서관계는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 민간위탁 등의 위기에 대항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본을 지켜내기 위한 운동이 진행되는 한편으로 시민과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다양한 긍정적 도서관운동들이 시도와 모색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 사회 분위기는 공공도서관 운동을 부르는 긍정적 상황으로 점철되고 있다. 우선,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정보시대라는 현재적 상황 그리고 지식·정보의 차별적 접근으로 야기되는 정보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작업의 사회적 상황은 지식·정보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인 공공도서관을 더없이 필요로 한다. 또한 현재 불붙고 있는 '학교도서관살리기 국민운동'도 학교도서관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전체 도서관계의 운동을 고무한

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 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유리한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2001년 3월 KBS1 TV가 공사창립 특집으로 방송한 2부작 다큐멘터리 'TV, 책을 말하다'¹⁶⁾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에서도 공공도서관 운동에 대한 긍정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보시대에 있어서 책읽기의 중요성과, 책읽기를 위한 사회 제반 여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우리 사회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인들은 이와 같은 사회적 상

황을 공공도서관 운동의 도약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공공도서관 운동의 내용을 그 이행단계에 따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다.

4. 운동의 평가와 과제

지금까지 해방이후 지식·정보의 대중적 보급과 확산, 지식·정보의 공공성을 실현하려

<표> 공공도서관 운동의 이행단계

연도	단계	성격	주요내용
1945	1단계	도서관기반 조성기	일본으로부터 도서관 인수 국립조선도서관학교 설립 조선도서관협회 결성 한국도서관협회 결성
1960	2단계	운동의 기초다지기: 제도화노력과 민간도서관 운동 주력기	도서관법 제정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공공도서관부회 결성 마을도서관 운동의 전개
1980	3단계	운동의 확대 심화기	대한도서관연구회 결성 개가 및 관외대출 이동도서관운동 입관료폐지 법개정 운동 도서관정책 소관부처 문화부이관 공공도서관 관장의 전문직화 전국사서협회 결성
1995	4단계	새로운 위기와 기회의 시대	도서관 명칭변경 저지운동 민간위탁 반대운동 창원지역, 경기지역 도서관운동 도서관운동연구회의 시도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의 출범

16) "[KBS창사 28주년 특집]TV, 책을 말하다, 1편: 그들은 책을 읽었다", 2001. 3. 3. 20:00-21:00 : "[KBS창사 28주년 특집]TV, 책을 말하다, 2편: 책읽기의 유혹", 2001. 3. 4. 20:00-21:00.

는 공공도서관 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 운동의 역사를 살펴봄은 과거를 잘 이해하지는 취지에 그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과거를 잘 안다는 것이 현재의 도서관적 현실을 이해하는 것에 그쳐도 곤란할 것이다. 역사를 살펴봄은 '미래를 지향하는 기억'¹⁷⁾ 이어야 한다. 현재를 변혁하고 개혁하려는 의도가 바로 역사를 살펴보는 의미기에 이 글에서도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운동이 가지는 한계점을 명확히 분석함으로써 현재 그리고 이후 도서관운동의 성공적 전개를 위해 견지해야할 입장과 자세를 제시하고자 한다.

4. 2. 1 운동의 정체성 부족

어떤 운동이든 운동의 성격과 이념적 원리에 의해 그 운동의 정체성이 확보된다. 운동의 정체성은 그 운동을 존재케 하며 운동의 방향을 잡게 하는 기본 토대가 된다. 또한 운동의 정체성은 그 운동이 위치한 지점과 운동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여 구체적인 활동과 사업의 기초원리를 견고하게 제공하게 된다.¹⁸⁾

공공도서관 운동의 정체성은 물론 '공공도서관이란 사회적 제도'의 탄생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세대와 직업과 인종과 종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문헌도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이념으로부터 탄생한다. 정보란 전유하거나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원리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은 형성되었고 발전해왔다. 이러한 원리와 철학에 기반해서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의 대중적 접근지로서, 지식과 정보를 재분배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대중화, 지식·정보의 공공성과 민주화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한다. 공공도서관 운동은 바로 공공도서관이 가진 이와 같은 정체성을 실현하는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운동은 전반적으로 운동이 지향하는 이념과 성격이 부각되거나 명확하게 천명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물론 '지식·정보의 대중적 보급과 확산'이라는 기본적 전제로부터 공공도서관 운동이 출발하였고 이를 기저에 깔고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이후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이념과 성격은 점차 옅어지고 도서관 운동이 형식화되는 측면이 많았다. 즉 '도서관 건물을 세우자', '도서관 사서를 배치하라', '도서관법을 개정하자' 등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는 운동에 치중하였다. 이 같은 운동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사회를 대상으로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운동의 명분과 의의가 미약하고 사회적 파장 또한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도서관 운동이 사회적 명분과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운동에 대한 정체성, 그것의 이념과 성격에 대한 사서들의 명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운동주체인 사서들의 도서관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17) 임지현, "가상의 이념, 유머의 현실: 화석화된 사회주의의 슬픈 초상", 『아웃사이더』, 1호(2000), 66쪽.

18) 김종성,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2000, 255쪽.

바탕으로 운동의 명분과 의의를 사회로부터 확보하는 작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필요성과 유용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4. 2. 2 운동 주체세력의 취약성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운동주체역량은 운동의 승패를 가늠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특히 운동주체는 전체 운동을 이끌어 가는 운동세력으로서 이를 확보하고 조직하는 문제는 운동을 축적하고 확대강화하는 토대가 된다. 이에 연구자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그 주체 역량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해방직후는 국립도서관의 이재욱, 박봉석, 박희영 등 초기 개척자가 중심이 되었고, 6, 70년대의 운동과정에서는 마을문고운동가인 엄대섭, 이용남을 비롯하여 도서관법 제정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도서관협회 2대 상무이사인 이종문,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외국어대학교, 인천시립도서관장을 역임하고, 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운동을 이끈 장인식 등의 인물은 6, 70년대 도서관운동을 이끌어나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6, 70년대는 단위도서관 관리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한 도서관인들도 존재한다. 서울시립종로도서관장 이홍구, 대구시립도서관장 최재원, 춘천시립도서관장 조상현, 진주시립연암도서관장 김문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무에서 유를 형성해야만 하는 창조자적 금지로, 또 황무

지를 개간하는 개척자적 정신”¹⁹⁾으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도서관문화를 세우기 위한 운동에 주력하였다.

1980년대까지 도서관운동의 전반적 과정을 통해 볼 때 극소수 선도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극소수 지도자들이 도서관 개척과 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냈지만 공공도서관 현장의 대부분의 사서들이 도서관운동의 주체세력으로 형성되지 못하여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우리 공공도서관 현장은 현장을 일상적으로 개척할 운동주체가 턱없이 부족했다. 도서관현장에서 서비스를 혁신하고 단위 도서관운동과 전체 도서관운동을 동시에 도모할 인력의 부재함은 도서관운동세력을 형성하여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로 드러난다. 당시 공공도서관현장은 비전문직들이 거쳐가는 하나의 휴식처로써 이들 비전문직들에 의해 도서관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전근대적 인력 구조가 지배했었고, “유능한 공공도서관 직원은 전직해 가거나 좋은 자리를 찾아 대학이나 학교 혹은 특수도서관으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²⁰⁾ 상황이 거듭되었다. 사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낮음과 그 대우의 열악함을 현장사서들은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 극복하기보다는 전직으로 해결하려 하였고, 그나마 남아 있는 확보된 전문인력도 공공도서관의 열악성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약하였던지라 공공도서관 현장은 운동주체의 부족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 현장으로 유

19) 김진수, “동대문도서관보 창간사”, 《서울특별시립동대문도서관》, 창간호(1971), 9쪽.

20) 조상현, “1965년도 공공도서관의 회고”, 《도협월보》, 6권 10호(1965. 12), 6쪽.

입되는 젊은 인력들이 조금씩 축적되었다. 특히 이들 젊은 인력들은 1980년대 후반 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아 도서관근대화와 개혁에의 열망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이들에 의해 형성된 조직인 전국사서협회를 통해 당시 현장사서들은 도서관운동의 주체로 전면에 나서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국사서협회란 조직이 소강상태에 빠져들게 되자 전국사서협회를 통해 형성되었던 운동주체들의 역량도 십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지부진해진 상황이다. 현장개혁의 열쇠가 바로 일선 도서관현장의 사서들에게 있었음에도 사서들의 개혁적 몸부림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사서들은 오히려 “현장의 모든 어려운 원인을 무조건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며 자기성찰적 노력에 인색” 하였으며, 또한 “도서관현장의 여건이 어렵고 전망이 어두우니 어차피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거나 도서관문화의 터전이 되는 우리의 총체적 사회문화 수준이 이 정도인데 어찌할 수 있겠느냐는 식의 체념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²¹⁾ 즉, 현장개혁운동의 열쇠가 바로 일선 도서관현장의 사서들에게 있었음에도 사서들은 전반적으로 도서관운동의 주체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현장의 열악함을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며 현장개혁의 노력에 인색하였던 것이다.

한국 도서관계를 개혁할 주체세력의 부진은 전체 도서관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큰 난제로 작용하였다. 바로 이는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 이룩된 운동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분산적이며 개인적인 운동에 머물

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단위도서관 현장개혁과 전체 도서관계의 개혁과 개선을 위해 사서직을 운동주체로 나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열쇠를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도서관현장을 개혁할 운동주체를 양성하여 이들을 현장에 조직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도서관운동 주체를 공급하는 문제와 더불어 이들 주체들을 조직하고 조직된 주체들을 토대로 전체 운동을 이끌어갈 운동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도서관운동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한 사람의 개별운동, 혹은 한 사람의 개인적 리더십으로서는 운동의 지속성과 효과성의 면에서 미약할 수밖에 없다. 이들 주체들을 조직하고 이끌어 가는 운동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전체 운동의 역량강화로 연결된다.

지금껏 도서관운동을 이끌어온 핵심조직으로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하여 대한도서관연구회, 마을문고본부, 전국사서협회 등이 존재한다. 마을문고본부와 대한도서관연구회는 운동과정에서 소멸하였고, 전국사서협회는 현재 소강상태에 빠져있으며, 한국도서관협회는 1990년대 후반 불어닥친 도서관 명칭변경의 도전을 저지하는 운동과정에서 도서관계 대표조직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운동을 모토로 새롭게 부각되는 단체로서 도서관운동연구회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임있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도 시민과

21) 이용남, “우리 도서관문화의 현주소(제34회 도서관대회기조연설)”, 《도서관문화》, 37권 6호, (1996, 11·12), 14쪽.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도서관운동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도서관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걸 수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의 조직은 전국적인 판도에서 전체도서관 운동을 이끌어갔으나 단위도서관의 운동주체들을 조직하고 이들 주체들의 조직된 역량을 바탕으로 운동을 일상적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도서관운동의 역량강화를 내어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 요구된다.

4. 2. 3 운동의 독립적 전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운동은 전반적으로 도서관계만의 독립적 운동에 그쳐 운동의 사회적 파급효과나 그 위력의 면에서 대단히 미약하였다. 도서관의 존재이유는 바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기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할 사람들의 지지와 이해를 확보하는 것은 도서관운동의 명분을 세우는 것임과 동시에 운동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 된다. 바로 시민의 정보접근과 문화적 혜택을 도서관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관운동의 궁극적 목적이기때문에 도서관정책의 수요자인 시민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내는 일은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따라서 도서관운동의 과정에서 도서관과 이용자간의 역동성, 도서관과 시민간의 역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운동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자 한계는 바로 '도서관운동과 시민간의 고

리'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실 이 문제는 시민대중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문제와 상당한 관련을 가진다. 시민이 도서관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없는 경우 시민의 도서관운동에의 참여, 도서관과 시민간의 역동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경우의 도서관운동은 도서관계만의 폐쇄적이며 독립적 운동이 되고 만다. 결국 도서관운동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이용하고 도서관의 주인이 될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존재의미와 중요성을 홍보하고 이용자 스스로 도서관문화를 올바르게 세우는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운동이 도서관운동의 한 축을 형성하게끔 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운영과 도서관만들기 운동에 지역주민이 동참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도서관만의 혹은 사서들만의 독립적 운동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운동의 가능성을 내어오는 하나의 주요한 방안이 된다. 결국 이용자 스스로 알권리와 읽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을 조직하고 이들 조직된 이용자와 함께 도서관을 만들고 가꾸는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다른 다양한 사회운동과 연대함으로써 도서관운동의 독립화를 피하며 운동의 사회적 역동성을 내어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도서관운동은 전반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운동영역들과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내는 데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화개혁시민연대'에 의해 진행된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 캠페인'과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등 시민과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운동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어 도서관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도서관계는 도서관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양한 운동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범시민적 운동을 통해 도서관운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동의 사회적 위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4. 2. 4 현장과 강단의 연대 부족

공공도서관 운동은 물론 현장을 개혁하는 실천운동이며 일차적으로 그 운동의 주체는 현장사서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단에서도 현장도서관 운동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강단은 기본적으로 현장운동에 대한 이론과 전략을 생산하고 지원하며 현장에 운동인력을 공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운동의 역사를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강단은 현장개선을 위한 활동에 소홀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어느 관중보다도 열악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강단의 현장에 대한 적실한 이론적 뒷받침과 실천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었으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장'은 강단 연구자들에게 소홀히 취급되었으며 교육내용에서조차도 홀대받았다.

강단의 현장운동에 대한 관심의 부재는 교육을 통한 운동주체의 생산과 공급을 소홀히 하였다는 데서도 나타난다. 강단은 그 기본적

책무인 교육을 통한 최소한의 인력공급마저도 방기하여 결국 현장운동은 전문인력의 부족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 현장의 강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현장도서관운동을 주도해나간 업대섭의 다음의 편지글에서 당시 강단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방기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대다수 도서관학과 교수들이 공공도서관 강의를 포기하고 있으며 더욱이 서울의 명문 도서관학과 교수들이 우리 학과에는 낙후된 공공도서관에 취직 희망자가 없기에 공공 관련 강의를 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발설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도서관학과의 풍토입니다.²²⁾

이처럼 우리나라의 낙후된 공공도서관 현장은 교육내용과 과정에서 홀대받아 교육을 통한 최소한의 인력공급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현장의 인력난은 가중되었고, 결국 공공도서관 운동은 현장만의 고립적인 운동으로 진행되고 만다.

공공도서관 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운동이 보다 탄탄대로를 걷기 위해서는 강단과 현장의 강력한 연대가 요구된다. 강단에서는 현장운동의 이론적 원리를 개발하고 이를 제시하거나 현장에 유용한 현장 개선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현장운동의 폭과 깊이를 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운동인력을 생산하여 현장에 공급하는 책무도 소홀히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헌정보학이 도서관현장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또한 지식·정

22)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정근 교수에게 보낸 업대섭선생의 서신", 1985. 8. 15.

보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공공도서관은 문헌정보학이 기반하는 현장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관중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계의 공공도서관 운동에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4. 2. 5 일상적 운동의 부재

한편, 전체 도서관운동의 비중이 있어서 도서관의 제도개선과 정책형성을 위한 운동에 주력한 반면 일상적 도서관운동이 부재했다는 점도 지금까지 도서관운동이 가지는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근대적 도서관의 역사가 짧고 내용이 빈약한 개발도상국들은 주로 효율적인 도서관정책에 입각해서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²³⁾ 하려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도서관인들도 도서관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도서관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해방직후 도서관법의 제정에 에너지를 쏟아 부었고, 이후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사력을 다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도 도서관법의 개선과 관련하여 도서관인들은 많은 에너지를 투여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정책이 입안되어도 제정된 법과 정책이 구체화되거나 실현되지 못하는 허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결국 법과 제도의 개선운동과 아울러 이후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압박해 들어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진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바로 법적 제도적 개선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도서관현장 일선의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를 모색하는 일상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하는데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데는 미약하였다는 점이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도서관이 열악한 이유를 법과 제도적 문제로 치부한 나머지 제도적 개선을 비롯한 외부적 환경의 변화만을 기대하고, 도서관내부로부터의 개혁과 변화를 내어오는 일상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내지는 못했던 것이다.

한편, 일상적 운동의 전개가 부진했던 또다른 원인을 도서관운동이 전반적으로 ‘상황중심적’이며 ‘이슈중심적’으로 전개되었다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운동은 전반적으로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과정들이 반복되는 양상을 띄었다. 도서관법 및 제도 관련 문제가 이슈가 되었을 때 또는 도서관 명칭변경, 민간위탁이 진행되는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도서관계 운동세력들은 주로 그와 같은 이슈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모여서 논의하고, 항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형식을 위주로 운동을 진행하였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 도서관 환경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이지 못한 체제이기에 대두되는 이슈나 상황에 대응하고 대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슈중심적인 운동, 상황중심적인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단위도서관현장에서 ‘일상화된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일상적 운동을 전개하는

23) 이용남, 앞의 글, 9쪽.

데는 미약하였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운동사의 조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도서관의 역사는 바로 지식·정보의 대중적 보급과 확산, 그리고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역사였다. 도서관운동을 이끌어간 지도자들은 바로 '지식·정보의 대중적 보급과 확산'이라는 대의와 명분 속에서 공공도서관을 확보하며, 관련제도와 법을 제정하는 운동, 도서관서비스를 개혁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공도서관 운동의 역사에 대한 고찰과 성찰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도서관운동의 희망을 만들어내고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선배사서들의 도서관운동의 개혁의지와 그 성과를 계승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도서관운동의 대

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식·정보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운동,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확보하고 개선하는 운동, 지역에 도서관을 세워내는 운동, 도서관에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갖춰내는 운동, 지역 공공도서관을 개척하고 서비스를 개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민의 정보접근지로 기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의 대열에는 일차적으로 사회의 지식자원의 축적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가 주체가 되어 시민, 사회운동단체, 지식인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끌어내고 연대를 보장하여 지식·정보의 평등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읽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지식생산성과 사회의 지식생산성을 높여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 운동의 희망과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서관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도서관인들은 도서관운동의 질적 도약을 위해 개척자적인 정신과 사명감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용남.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와의 면담, 2000. 2. 8. 16:00-19:00, 서울 광화문 근처 찻집.
 이용훈. 전국사서협회 초대회장과의 면담, 2000. 8. 23. 10:00-14:30, 국립중앙도서관 내.
 조원호.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과의 면담, 2000. 4. 24. 12:00-17:00, 한국도서관

협회사무실.
 새마을문고운동40년사편찬위원회, 『새마을문고운동40년사: 1961-2000』, 새마을운동중앙회, 2001.
 日本圖書館協會. 『マウル(村落)文庫調査研究報告書』, 1987.
 김포옥. 1990. 『광복이후 한국 공공도서관사 연구: 일제하 공공도서관제도의 영향

- 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세익. 1966. 관외활동과 도서관운동의 새방향: 한국 근대화 작업에 도서관은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 『도서관』, 108호 (1996. 8)
- 박봉석. 1947. 一郡一館, 『文苑』, 국립도서관보, 12호(1947. 3. 1).
- 박희영. 1947. 조선 도서관계 혁신에 대하여, 『文苑』, (국립도서관보), 14호(1947. 4. 1).
- 엄대섭. 1968. 농어촌에 심는 독서의 씨앗: 마을문고 설치 일만 개를 돌파하고, 『신동아』, 1968. 7.
- 이용남. 2000. 마을문고 운동의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립 20주년 기념논문집』.
- 이재욱. 1947. 농촌과 독서, 『文苑』, (국립도서관보), 19호(1947. 9. 1).